

현대자동차그룹, 제네시스·쏘렌토·아반떼까지 연속 흥행

‘혁신·디자인·성능’, 코로나 장벽 넘어 소비자 매혹

GV80, 누적 계약 2.1만대 돌파
쏘렌토, SUV시장서 독보적 존재감
아반떼 7세대, 진취적·역동적 변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연초부터 출시하는 차량마다 연속 대박 행진을 터뜨리며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도 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분위기 덕분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제네시스 GV80의 출시 이후 이어 기아차 4세대 쏘렌토를 선보이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어 GV80 가솔린 모델 출시와 G80과 현대차 7세대 아반떼의 이미지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GV80은 지난달까지 누적 계약 대수 2만1000대를 넘어섰다. 올해 GV80 판매 목표가 2만4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제네시스는 지난 9월 GV80 2.5 가솔린 터보와 3.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추가로 출시하며 엔진 라인업을 총 3개로 확대했다. GV80은 가솔린 모



제네시스 GV80 가솔린.



기아차 4세대 쏘렌토.



현대차 ‘올 뉴 아반떼’ 티저 이미지.

델까지 추가되면서 판매에 날개를 달게 됐다.

기아차 4세대 쏘렌토는 출시 초기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논란이 발생했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중형급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쏘렌토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난달 20일 당일에만 1만8941대가 계약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이달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의 불룸 모델 G80은 이미지 공개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G80은 2008년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럭셔리 세단으로,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의 탄생을 주도한 핵심 모델이

다.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신차로 돌아온 G80은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독일 3사와도 경쟁할 수 있는 디자인” “최고의 신형 럭셔리 세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자동차 매체 로드앤트랙은 “G80은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등에 경쟁하려 한다”고 평했다. 다른 자동차 매체 카엔 드라이버는 “신형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징인 오각형 그릴과 헤드램프를 결합한 과감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럭셔리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 모습에 주목했다.

이어 현대차는 다음달 출시를 앞둔

중형 세단 아반떼의 7세대 모델 디자인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6세대 모델 이후 5년 만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아반떼는 지난 1990년 처음 출시된 중형 세단으로 국민 차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많이 판매되었다. 해외 판매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총 1380만대가 생산됐다.

현대차는 “7세대 모델은 미래를 담은 과감한 디자인과 일상을 혁신하는 최첨단 안전 편의 기술, 효율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성능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7세대 아반떼는 차량의 뼈대인 플랫폼이 바뀌었다. 현대차는 “무게중심이

낮아졌고,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외관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느낌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세 개의 선이 만나 하나의 꼭지점을 이루는 삼각형을 외장에 전체적으로 녹여내면서 기하학적인 도형의 연쇄(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를 연상케했다는 설명이다.

내장 디자인 역시 운전자 중심의 실내 디자인 배치가 이뤄졌으며, 외관의 역동적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중형 세단 최초로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G90’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G70·G80에 이어 전 모델 최고등급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최우수’ 평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인 G90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 받았다.

제네시스는 G90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G70과 G80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G90까지 이 등급을 받아 세단 전 모델이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했



제네시스 G90.

다.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실제 사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충돌 부위인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 25%를 벽에 부딪히게 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G90은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 ‘상급’ 이상, 전조등 평가 ‘우수’ 이상 등의 요건도 만족시켰다.

G90의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은 12mph(19.3km/h)와 25mph(40.2km/h) 속력의 차량과 충돌 상황에서 충돌을 회피해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상황에서는 저속에서 충돌을 피하고 고속에서 속도를 급격히 낮춰 ‘상급’ 등급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요금부담 없이 ‘지포스 나우’ 즐기세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LGU+ 모든 5G 이용자에 무료제공

LG유플러스 5G 이용자들은 5G 클라우드 게임 지포스나우를 요금 부담없이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됐다. 지포스나우는 최신 인기 PC 게임을 다운로드 없이 5G 스마트폰과 윈도 및 맥 기반의 저 사양 PC로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리그 오브 레전드’, ‘철권7’, ‘포트나이트’, ‘데스티니2’ 등 총 200여 개의 인기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나우’를 모든 5G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지포스나우 서비스 상품을 두 단계로 개편했다.



모델들이 5G 클라우드 게임 지포스나우 무료 제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프리미엄 상품인 ‘지포스나우 프리미엄’은 정가 1만29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번 접속시 최대 6시간의 연속 플레이가 가능하다.

‘지포스나우 베이직’은 월 이용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U+ 5G 가입자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T-ADT캡스, IoT·보안서비스 결합

‘캡스 스마트 빌리지’ 출시

SK텔레콤은 ADT캡스와 함께 공동 주택 환경에 필요한 스마트홈 기능과 보안 서비스를 결합한 ‘캡스 스마트 빌리지’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과 ADT캡스는 SK텔레콤의 공동주택단지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홈 3.0’에 ADT캡스의 보안서비스를 결합, 하나의 서비스로 묶은 ‘캡스 스마트 빌리지’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도 마련해 입주민들이 하나의 앱에서 스마

트홈과 보안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캡스 스마트 빌리지’는 기존 스마트홈의 기능과 경비시스템을 결합했다. 기존에 관리실을 방문해 해결해야했던 단지 내 출동·순찰 요청, 장기 부재 시 세대 방법 강화 요청, 방문차량 예약관리 등을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캡스 스마트 빌리지’ 적용 단지의 주민들은 별도의 방문이나 전화 통화 없이, 앱 실행만으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캡스 스마트 빌리지’는 기존 SK



ADT캡스보안요원이 ‘캡스 스마트 빌리지’ 앱을 구동하고 있다. /SK텔레콤

텔레콤의 ‘스마트홈 3.0’의 다양한 IoT 기능도 제공한다. 주요 기능은 ▲AI를 통한 가정 내 IoT기기 및 빌트인 기기 제어 ▲공동 환문문 자동 출입 ▲주차 위치 확인 ▲무인택배 도착 알림 ▲단지 내 투표 등이다. /김나인 기자

美 HD구루 “최고 화질·음질 구현”

삼성전자 QLED 8K TV가 해외에서도 잇따라 좋은 평가를 받았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IT 전문 매체 ‘HD구루’는 “QLED 8K(Q800T)가 최고의 화질과 음질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색 재현율, 컬러볼륨, HDR 성능 등을 호평했다.

차별점으로는 ▲화면의 빛 반사를 줄여주는 ‘눈부심 방지 기술 2.0’ ▲넓은 시야각으로 화면의 어떤 위치에서도 최고의 화질을 유지해 주는 ‘광시야각 플러스’ ▲게임에 특화된 최고의 화질·사운드·반응속도를 지원하는 ‘리얼 게임 인핸서 플러스’ 등을 꼽았다. 8K TV가



삼성전자 QLED 8K TV. /삼성전자

곧 TV 시장 주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지 않았다.

미국 테크 전문가그룹 AVS포럼도 QLED 8K(Q800T)를 “디자인과 사운드 모두 환상적”이라고 평했다. “거실·게임·홈 시어터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며 2020년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김재용 기자 juk@